

# REGULAR PUBLICATIONS ABOUT KOREAN ART 1921-2008



## 미술잡지, 그 영욕의 세월

1921년 10월, 국내 첫 미술잡지가 창간됐다. 발행면수 23쪽으로 이루어진 《서화협회보》가 바로 그것이다. 비록 서화협회 기관지라는 한계가 있지만, 제2호까지 발행한 미술정기간행물의 면모를 보이면서 국내 미술정기간행물 역사의 스타트를 끊었다. 이후 어언 90여 년에 이르는 시간동안 국내에는 수많은 미술관련 정간물이 명멸했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개관기념전 〈미술정기간행물 1921~2008전〉(10.22~2009.1.31)은 1921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미술관련 간행물을 총망라한 흥미로운 전시다. 김달진 관장이 지난 36년간 '집념으로' 수집·정리한 총 110여 점의 잡지 창간호를 만날 수 있다.

### 《서화협회보》 서화협회, 홍방원, 1921.10

미술분야만을 내용으로 삼는 정기간행물로는 최초, 전체 23쪽에 정가 40전의 소규모 인쇄물이었지만, 표지와 목차, 판권을 갖춘 정규 잡지였다. 계간으로 간행할 계획을 밝혔지만, 1922년 3월 제2호를 발행하고 그 이후는 발행되지 않았다.

1921년 10월 창간한 《서화협회회보》는 사륙배판 크기의 23쪽에 정가 40전짜리 계간지로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잡지다. 하지만 서화협회 기관지로서 회원의 논문과 작품을 도판으로 게재한 이 조그만 잡지를 과연 언론 자격을 지닌 미술잡지라고 할 수 있을까. 언론의 절대기준은 무엇보다도 자본과 편집의 독립성이다. 그런데 《서화협회회보》는 이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과 내용에서 잡지체제를 갖춘데다가 제2호까지 발행하고 말았지만 정기간행물의 면모를 과시한 조선 최초의 미술전문 출판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순 없다. 당대는 물론 지금까지 회보가 '실로 조선 초유의 미술잡지'임을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유 또한 거기에 있다. 두 번째 미술잡지는 1946년 5월에 창간한 《조형예술》이다. 사륙배판 크기의 16쪽에 정가 10원짜리였다. 이것도 조선조형예술동맹 기관지이니 결국 서화협회 기관지와 별반 차이가 없다.

결국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언론이라 할 때에는 1956년 9월 이항성이 창간한 《신미술》이다. 물론 자본과 편집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언론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특정 집단의 견해를 대변하는 기관지의 한계는 훌쩍 뛰어넘을 수 있었다. 《신미술》 창간 당시는 미술계가 대한미술협회와 한국미술가협회로 분리되어 한창 대립하던 시절이었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를 둘러싼 두 단체의 대립은 너무도 극심해서 정치권까지 개입할 정도였지만 이항성은 어느 한쪽에도 소속되지 않았고 미술교사들의 단체인 미술교육연구회에만 참가한 제3자였다. 이항성은 《신미술》 창간호 〈권두언〉을 당시 대한미술협회 위원장 도상봉에게 쓰도록 했지만 첫 글인 〈현대서양화감상〉은 당시 한국미술가협회 발기인이자 회화부위원 김병기에게 쓰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시 필자가 대한미협 정규, 박성환 그리고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았던 최순우, 김중업, 박고석, 안병용, 김영주, 김홍수였음을 생각한다면 이항성의 의도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특히 《신미술》 발행 직후 창간호 필자가 대거 참여하여 11월 27일 한국미술평론가협회를 결성했다는 사실이 흥미로운데 미술인들 사이에 《신미술》의 출현을 계기로 언론의식이 드높아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런데 《신미술》은 이후 평론가협회 회원만이 아니라 외부 필자의 비평 지면을 마련하지 않았고 1962년 7월에 속간한 12호에 가서야 '미술평론' 특집호를 꾸며 이경성, 이항성, 김수근, 정규, 박서보, 김인환의 비평을 게재하였다. 다음달에 간행한 13호는 '63년 미술과 대학입시문제'로 꾸며졌는데 하필이면 이것이 마지막호가 됨에 따라 최초의 미술언론지가 지켜야 할 명예로움이 흐트러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종간사가 되어버린 13호의 〈머리말〉은 가슴저린 고백이다. 이항성은 '마지막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발간을 중지해야 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젊음이 허용하는 한 지속 발행을 다짐했던 것이다. 비

장한 다짐에도 불구하고 《신미술》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신미술》의 존재는 이항성 자신의 평가대로 대한민국에 '미술잡지가 있었다는 기록을 세웠으며 한국미술을 현대화시킨 공로'가 있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신미술》 폐간 5년 만인 1966년 11월 건축가 김수근이 종합예술전문지 《공간》을 창간하였다. 건축을 기본으로 삼되 창간호에 미술사학자 진홍섭과 김철순의 원고와 화가 박서보의 '전위미술론' 그리고 화가 전성우를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함으로써 건축과 미술을 아우르는 편집 방침을 천명하였다. 2호에는 제33회 베니스비엔날레 관련 원고 세 편을 게재하였으며 이후 미국조각, 세계미술 베스트 10, 동경국제판화비엔날레전, 현대미술의 오늘, 이중섭 그의 생애와 예술의 면모와 같은 내용을 꾸준히 마련했다. 특히 창간 직후 1968년까지 2년 동안 지면을 장식한 필진의 면모를 보면 진홍섭, 김철순, 김원룡, 최순우, 황수영, 강우방과 같은 미술사가와 박서보, 손동진, 서세옥, 백남준, 김응현, 김충현과 같은 작가 그리고 박래경, 이경성, 이일, 오광수, 석도룡, 박고석, 이봉상, 김영주, 이구열, 정규, 이영환과 같은 당시 비평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야말로 미술언론으로서 위상을 굳건히 했던 것이다.

1973년에 접어들어 현대화랑, 명동화랑이 미술잡지를 창간했다. 화랑이 미술잡지를 간행하기 시작한 것은 미술시장의 성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순수미술언론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조짐이었다. 그로부터 3년 뒤 1976년 겨울 국내 유수의 언론사인 중앙일보사가 《계간미술》을, 1977년 4월 미술출판사인 세운문화사가 《미술과 생활》을 선보였다. 계간미술과 미술과생활의 탄생은 순수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미술언론의 출현을 뜻하는 것이었다. 건축과 미술의 절충도 아니고 특정 단체나 상업화랑의 기관지도 아닌 그야말로 미술종합언론지였던 것이다.

《계간미술》은 창간호에 미술평론가 이경성, 이구열, 이일, 임영방, 오광수, 박용숙, 김인환을 필자로 등장시킨 이래 곧바로 평론상 제도를 마련하여 3호에 원동석을 배출시키는가 하면 2호부터 평론가들이 선정한 조각가, 동양화, 구상화가를 연속으로 내보냄으로써 미술비평과 미술언론의 권위를 동시에 확립하는 편집기획의도를 선보였다. 《미술과 생활》은 미술평론가 임영방을 주간으로 삼아 평론가 성완경, 유근준, 장소현, 최민, 윤범모, 이구열을 필자로 등장시키는 가운데 창간호부터 굵은 특집을 마련하여 미술과 사회, 미술은 사치스러운 것인가, 전쟁과 미술과 같은 기획으로 매우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두 전문지는 자본과 편집을 분리했다는 점에서 미술잡지 역사의 새 단계를 개척한 주인공이었다. 편집진의 구상과 기획의지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하는 언론의 기본 요건이 비로소 미술전문지에도 구가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70년대는 순수 미술언론의 출발을 알리는 시대였을뿐만 아니라 장르별 잡지시대를 여는 때이기도 했다. 1973년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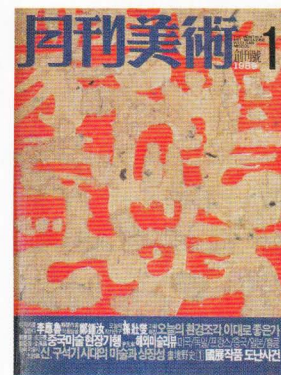
1



**미술종합지** 1921년 《서화협회보》가 발행되면서 국내 미술정기 간행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평가된다. 이후 90여 년간 다양한 성격의 미술 정간물이 출간되었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바로 미술종합지다. 특집, 전시, 작가 등 미술의 다양한 부분을 한 권의 잡지에서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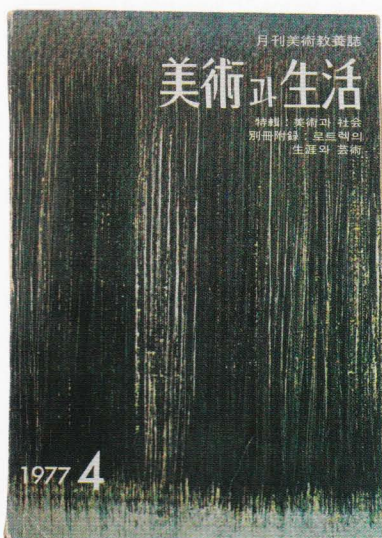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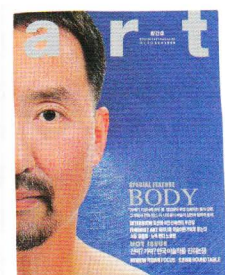
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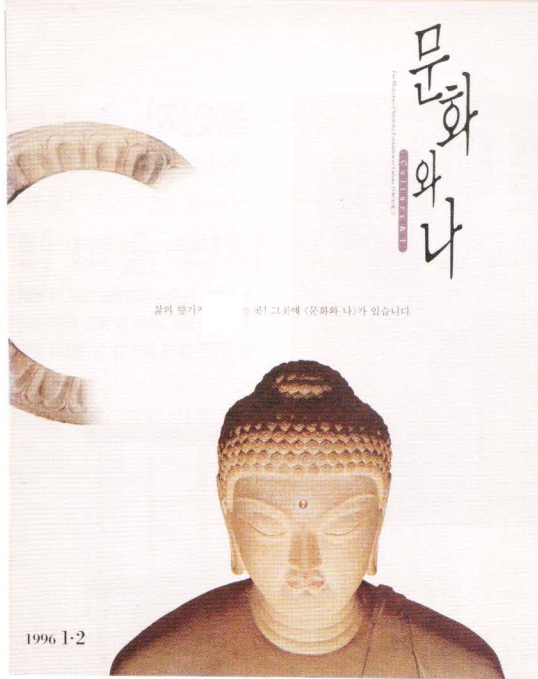


9

1 《미술》 문화교육출판사, 이항성, 1964.6 창간호이자 폐간호가 되었다. 2 《계간미술》 중앙일보사, 홍진기, 1976. 겨울 국내 신문사로서는 처음으로 중앙일보사는 '생활 속에 미술 심는 종합 미술지'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계간미술》을 창간했다. 이후 1989년 월간으로 발행하면서 《월간미술》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다. 3 《서울아트가이드》 김달진미술연구소, 최명자, 2002.1 4 《월간미술》 중앙일보사, 이종기, 1989.1 5 《신미술》 신미술사, 이항성, 1956.9 본격적인 미술잡지의 창간을 선포했다. 정가 500원이었고 사륙배판이었다. 1958년 10월, 제 12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국전〉, 〈대한미술교류회전〉 등을 특집으로 다루었고, 대부분의 지면은 전시회 소식과 미술교육에 할애했다. 총 지면 수는 30~70쪽이었다. 6 《미술과 생활》 미술과생활사, 이용길, 1977.4 1970년대 미술잡지의 일반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선명한 기획력이 돋보였지만, 취약한 재정구조와 경영진과 편집진의 입장차가 노출되었다. 1979년 9월 23호로 폐간되었다. 7 《가나아트》 가나아트, 이호재, 1988.5/6 8 《미술세계》 미술세계사, 이금홍, 1984.10 9 《아트(art)》 (주)미술사랑, 이규일, 1999.10



1



2

**기관지** 문화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정간물로 박물관, 미술관부터 문화재단까지 다양한 기관에서 미술과 관련된 정간물을 발행하고 있다.

- 1 《박물관신문》 국립중앙박물관, 1970.7  
2 《문화와 나》 삼성문화재단, 이견희, 199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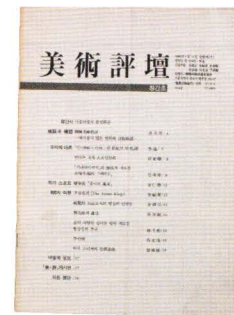


1

**학술지**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학술지가 간행되었다. 주로 학술단체와 연계되어 발행되는 이러한 학술지는 미술계의 다양한 이론과 담론을 생산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2



3

- 1 그 외 국내에서 출간되었던 각종 미술학술지들  
2 《미술자료》 국립중앙박물관 1960.8  
3 《미술평단》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오광수 1986.여름

**도록류** 주로 연간으로 발행되었는데, 매년 개최되는 전람회에 출품한 작품 도판을 수록한 형식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조선미술전람회의 도록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수많은 전시회 관련 도록이 출간되고 있다.



- 1 《조선전람회도록》 조선사진통신사, 1922.8  
2 《이왕기덕수궁진열일본미술품도록》 3집 이왕직, 1936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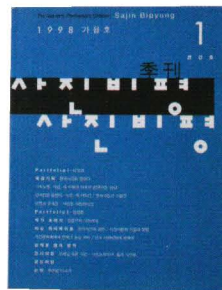
**동인지** 미술현장에서 직접 활동했던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정간물을 발행했다. '미술잡지'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이러한 동인지가 미술현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했고, 심도깊은 이론의 장이 되기도 했다.

1 《AG》 한국아방가르드협회, 1969.9 2 《조형예술》 조선조형예술동맹, 1946.5  
1946년 5월 20일 발행된 16쪽짜리 간행물로 정가 10원에 판매되었다. 이 책에는 6·25전쟁 때 월북한 작가들의 글이 몇 편 실려있다. 창간호가 폐간호가 되었다.

**전문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술잡지 창간 중 주목할만한 점은 미술의 여러 장르 중 한 장르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전문지가 창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966년 창간된 《공간》은 건축 중심의 전문지로 발전했고, 1976년 10월 《디자인》은 디자인 전문지로 창간되었다. 최근에도 다양한 전문지가 출간되고 있다.



1



2

1 《공간》 공간출판사, 석정선, 1966.1  
건축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예술을 다루었다. 최근에는 건축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2 《사진비평》 사진비평사, 임향자, 1998.8 3 《디자인》 디자인하우스, 이영재, 1976.10



3

예전문지 《서통》, 1975년 사진전문지 《영상》, 1976년 월간지 《디자인》, 1977년 《꾸밈》이 탄생한 이래 분야별 미술잡지가 줄을 지었다. 물론 탄생과 소멸의 부침을 거듭하였는데 이런 현상은 상업화랑 및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들도 마찬가지였다.

### 미술잡지 과잉시대, 침된 미술언론 역할이라는 과제

1988년부터 1989년은 매우 특별한 한 해였다. 《가나아트》가 창간되었으며 계간미술이 《월간미술》로 전환하였는데 이로써 1984년에 창간한 《미술세계》와 더불어 이른바 미술종합지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월간 미술은 계간미술 시대에 구축한 명성과 권위를 계승하여 확고한 종합지의 위상을 다져나갔는데 1989년 창간호는 '해금작가 작품발굴'과 '화단야사' 만으로도 커다란 주목을 얻기에 충분했다. 가나아트는 발행인이 상업화랑이었지만 창간호부터 민중미술계열의 필자와 작가를 지면에 대거 노출시킴으로써 이전의 어떤 미술잡지와도 확연히 다른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가나아트가 차별성을 획득하기 시작한 때는 윤범모가 주간을 맡으면서부터다. '제3세계의 미술문화운동' 및 '철저해부, 오늘의 북한미술'과 같은 특집은 그 내용의 강렬함은 물론 분량의 방대함에 이르기까지 충격과 신선함 그 자체였다. 《월간미술》과 《가나아트》가 쌍두마차를 이루며 이른바 주류군을 형성하고 있을 때 《미술세

계》는 그 시야를 저변으로 확대하여 주변군을 형성함으로써 좁디좁은 미술계 주류의 높은 아성에 도전하는 형세를 이루고 있었다.

20세기의 마지막인 1999년 《아트(art)》가 젊은 작가들에게 다가서며 새로운 희망으로 탄생하자 21세기의 시작인 2000년 흔들리던 《가나아트》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다. 이로써 《아트》는 《월간미술》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쌍벽으로 등장하여 주류의 지위를 차지하였거니와 최근에 이르러 미술잡지의 숫자는 무려 200여 종을 헤아리는데 도달하였다. 특히 2002년 《서울아트가이드》의 경우 미술정보만을 다루는 특수잡지로 성공하여 미술잡지역사의 새로운 영역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미술잡지를 표방하는 술한 정기간행물 가운데 상당수는 작품 판매용 소책자나 다름없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지만 잡지형식을 갖춘 채 구매자를 현혹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간행물들이 판을 치고 있고 또한 해석과 비평 기능은 물론 정보전달 기능조차 상실한 채 함량미달의 필자들이 잡문을 휘갈기는 지면낭비 또한 극심한 지경이다.

불처럼 타오르는 시장의 영향이었을까, 말 그대로 과잉시대이거나 저 주류군을 자처하는 잡지 몇만이라도 침된 언론으로서 시대와 역사의식을 지니고서 미술사의 담지자 역할을 지속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최후에 그 이름을 향기로움으로 남길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만의 바람이 아닐 것이다. ●

# “미술자료 수집은 우리 미술 역사 기록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

과거 관장이 모아왔던 자료가 서서히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근황이 어떤가? 박물관 개관 소식에 신문, 라디오 방송, TV 밤 9시 뉴스에까지 보도되고 언론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 한 개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미술자료를 수집해서 미술연구소를 만들고, 미술자료박물관을 개관하여 관심이 컸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우리 미술계에서 자료의 중요성과 미술자료관이 절실히 필요했음을 말해주는 반증이라 생각한다. 나의 사명은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술판 현장의 흐름을 짚어 내고 우리 현대미술의 기초 사료를 기록자로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다. 이제는 필요한 사람에게 미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5년간, 가나아트센터에서 5년간 자료를 모아왔다. 그전에 개인적으로도 자료를 모아온 것으로 안다. 왜 이러한 자료수집에 뛰어들게 되었나? 또한 미술분양 자료로만 한정지었다는 것이 독특하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981년부터 1996년까지 근무했는데 1986년까지는 임시직,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1987년에야 발령을 받았다(2001년에 받은 경력증명서에서는 인정을 해주더니 2007년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니 1986년까지는 인정을 안해주고 발령받은 1987년부터 9년으로 근무연한을 표기해주었다). 가나아트센터에서는 5년10개월 근무했다.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취미가 있는데, 나는 중학교 시절부터 모으는 것을 좋아했다. 상표, 담뱃갑, 화폐, 우표 등. 특히 기념우표가 나오면 우체국 창구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구입을 했다. 그러다가 여성잡지 《여성》, 《여원》, 《주부생활》 등에 한 달에 그림 한 점을 소개하는 명화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모으기 시작했다. 40여 년 전에는 지금처럼 어디 미술관이나 화랑에 가서 그림을 감상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의 원화를 보는 것은 더욱 불가능했다. 더구나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도록, 개인화집도 드문 형편이어서 인쇄물로 된 명화를 뜯어 모았다.

미술자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모든 일은 자료조사에서 시작되는데 논문을 쓰거나 큐레이터가 전시를 기획하려고 할 때 먼저 같은 주제의 전시가 과거에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술시장의 규모, 1년 전시회 통계, 그게 어디서 나오겠는가. 자료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데도 이용만 하려 하고 2차 자료를 가공, 생산하거나 1차 자료를 발품 팔아서 모으는 데가 없다. 자료수집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나. 사실 수많은 전시가 열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미술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자료를 남기고 버리는 데 기준이 있어야 할 듯싶다. 모든 것이 자료라고는 하지만 그 자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치부여가 필요하다. 아카이브에서는 공간이 허용된다면 일단은 많은 자료를 카테고리, 주제별로 모아야 한다. 1차 현물 자료를 모으고, 그 다음 조사 연구를 통해 자료를 정리한다. 사실 자료를 모았다고는 해도 박물관까지 내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큰일을 해냈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개관한 후, 나는 한계에 다다른 것을 느꼈다. 김달진미술연구소가 있는 지하 60평 공간에서 2층 박물관인 김달진미술자료관 등록에 따른 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연구소 길 건너 2층 사무실로 이전했다. 지금까지는 좋아서, 그저 열심히 하다보니 이룩된 일들이었지만, 가장 큰 과제인 공간 확보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어려운 일이다. 개관한 얘기를 해보자. 지난 3월 개관 하고 정식 개관전은 좀 늦었다. <미술 정기간행물 1921-2008전>이라는 간단한 제목이 달렸지만, 실상은 어마어마한 작업이다. 최초의 미술잡지인 《서화협회보》 이후 2008년 창간 잡지까지 87년을 돌아보았다. 미술 정기간행물 110여 종을 전시하였고, 정기간행물 연보를 통해 330여 종을 도록에 정리하였다. 그동안 수집한 미술잡지와 미술잡지 현상에 관해 썼던 세 차례 글, 《서울아트가이드》 발행이 밑바탕이 되었다. 미술정기간행물 총목록을 만드는데 많은 종류가



언제 발행 중단되었는지 폐간 상황을 알 수 없었다. 실물을 가지고 조사했지만 어느 경우, 기존자료에 의존하다 보니 발행처, 제호변경, 간벌조정, 발행인, 편집인 등을 찾기가 어려웠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몇 곳에서 대여받은 자료가 있다. 소장하고 있는 미술잡지도 합본을 해놓아 사진촬영과 전시에 마땅치 않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빌려왔는데 발행연도 1960년대까지는 권당 100만원, 1970년 것부터는 50만원으로 산정해서 보험료를 지급했다. 우리 박물관의 소장품을 대여할 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전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달라. 우리나라 미술정기간행물의 역사를 평가한다면? 전시는 내년 1월말까지 계속되는데 종합지, 전문지, 동인지, 기관지, 학술지, 도록류 6개 색선으로 창간호를 중심으로 전시하였다. 우리나라 미술잡지의 부침이 매우 심했다. 창간호가 폐간호로 변한 잡지와 자료에만 있고 실물을 볼 수 없는 잡지도 있었다. 현재 최장수 잡지는 《월간 사진》과 《SPACE》로 그 역사가 40년 되었다. 자료박물관에서 자랑 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1928년 오세창의 《근역서화집》, 1929년 Andreas Eckardt의 《History of Korean Art》, 1938년 《오지호 김주경 2인화집》, 우리근대작가 260여 명의 개인파일 스크랩북 등이 있다. 자료박물관을 개관한 지 거의 1년이 지났다. 사실 운영이 쉽지 않을텐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어떤가? 김달진미술연구소와 박물관의 재원은 오직 《서울아트가이드》의 광고비에 의존한다. 이 광고비를 받아 《서울아트가이드》 제작비, 원고료, 발송료, 나를 포함한 9명 직원의 급여, 두 공간의 임대료, 운영비까지 해결해야 한다. 한 달 버티기가 힘들다는 중소기업 시장의 고충을 심본 이해하게 되었다. 내 업무는 연구소 소장, 박물관 관장, 《서울아트가이드》 편집인 일에 전시장 출장 자료수집, 외부 원고 기고 및 특강, 때로는 광고료 미납자에게 독촉 전화하기까지에 이른다.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회를 생각하고 있다.

국가적인 미술자료정보센터의 필요성은 과거부터 제기됐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민족이 제일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기록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일이다. 중요한 미술자료들은 아날로그 자료의 보존과 디지털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한데 이는 곧 국가의 문화자산이 되는 것이다. 1995년 미술의 해에 '미술문화정보센터 설립연구'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고, 2007년에도 국립미술아카이브(가칭) 설립을 위한 '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 활용방안 연구'가 있었지만 보고서로 끝나고 말았다. 만약 1995년이나 2007년에 실제로 정보자료센터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그 시간만큼 더 많이 발전했을 것 아닌가. 만약 정부 차원에서 못한다면 잘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최근 한국 현대미술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문제, 미술품양도세 문제 등 굵직굵직한 문제가 산적해있다. 한국미술계에 대해 진단한다면? 이중섭 작품 진위 문제, 박수근 '빨래터' 진위 사비에다 미술품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양도세 과세문제... 등 가장 중요한 기초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허약함이 드러나고 있다. 창작 지원도 중요하지만 미술문화 인프라 지원이 절실하다. 개인적인 바람이나 계획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럴싸한 전시공간을 기대할 터인데 관람객이 찾아왔을 때 그렇지 못한 현실에 미안한 마음으로 내방객을 맞고 있다. 나의 마지막 꿈은 접근성이 좋은 인사동 주변에 미술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곳에 미술자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미술자료박물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미술자료실, 일반인과 소통할 수 있는 북카페, 한국미술을 외국인에게 알리는 홍보창구 역할을 하는 복합공간 기능을 갖추는 것이다. 미술계 인명록으로 미술이론가편, 작곡작가편을 준비하고 있다. 류동현 기자